데스크 시각

당연한 것이 당연한 세상

윤현석
경제·행정 부국장

1979년 10월 26일 오후 7시 40분께 서울 궁정동 안가에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대통령을 권총으로 살해했다. 1961년 5·16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박 대통령의 18년 장기 독재는 이로써 막을 내렸다. 이후 김재규의 행적은 우왕좌왕했으며, 결국 전두환에게 붙잡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만일 그가 면밀하게 준비를 갖춰 박정희 사후를 대비했다면 역사는 또 어떻게 달라졌을 지 아무도 모를 일이다. '야만의 시대', 새롭게 권력을 탈취하려는 세력들은 사형 집행을 서둘렀고, 사법부는 이를 방관했다.

46년 전 10·26 거사를 다시 보니

당시 김 부장을 변호했던 강신욱 변호사의 회고록 '영원히 정의의 편에'가 사후 3년여 만에 출간됐다. 강 변호사는 회고록에서 "그와 5개월여 일대일 접견을 해본 결과 그가 진정 인권과 자유민주주의라는 대의를 위해 개인적 소의를 희생한 의인이라고 생각했다"고 평가했다. 김 부장 유족들은 2020년 5월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는데, 4년이 넘은 지난해 7월에서야 개시 여부 결정을 위한 심문기일이 열렸다.

김 부장의 수행비서관이었던 박 대령은 영화 '행복한 나라'로 재조명되고 있다. 박 대령은 '미래의 참모총장감'이라는 평을 들을 정도로 뛰어난 군인이었으며, 요직에 있으면서도 산동네의 열두 평짜리 집에 사는 등 청빈했다. 그의 두 딸이 '우리 아빠 살려주세요'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울부짖는 사진이 알려지기도 했는데, 박 대령은 현역 군인이라는 이유로 군법회의 단 한 번의 판결로 사형이 집행됐다. 서슬퍼렀던 당시에도 졸속 재판이라는 논란이 있었다.

김 부장과 박 대령이 10·26 거사 이후 지금까지 계속 조명을 받고 있는 것은 어쩌면 그들의 태도와도 연관이 있을 지 모르겠다. 김 부장과 박 대령은 재판 내내 의연하고 떳떳하게 책임지는 자세를 보였다. 김 부장은 최후 진술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통령이라도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임무와 책임이 있어도, 독재할 권한은 누구로부터 받을 수 없고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령 역시 담담하게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였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변론이 20일 10차를 마지막으로 끝난다.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안위만 돌보려는 대통령의 말과 태도, 자세를 보면서 처음에는 당혹스럽다가 이제는 씁쓸함 마저 든다. 대통령으로서의 권위, 신뢰감, 논리, 정직함 등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그가 "2년 넘는 시간 동안 국정을 제대로 돌봤을 리 없을 것"이라는 짐작이 확신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자신의 명령에 따른 장관, 군사령관 등에게 거짓말을 재촉하는, 그의 비루함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모를 리 없다. 굳이 순리나 이치를 따질 필요도 없이 45년만에 비상계엄에 나선 것 자체로 그는 시대를 역행한 반역·내란의 우두머리일 뿐이다. 갖가지 해명, 변명이 난무했지만 윤의 변호인들조차 그의 반헌법적 행위와 유죄를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비루한 대통령, 그를 추종하는 극단세력

탄핵반대집회가 지난 15일 45년 전 전두환의 비상계엄 확대 조치에 저항하며 피를 흘린 도시, 광주에서도 열렸다. 무대에 오르고, 집회에 참석한 이들이라고 상식이 없거나 인지 장애가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개중에는 정치인, 유명인도 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이 무지몽매한 윤석열 대통령을 동조·추종하는 것인가. 진실을 외면하며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자신의 이익이나 욕심 등을 교묘하게 꾸며 누군가를 현혹시키는 것이 만연한 세상이다.

극단 세력이 계속 확장성을 가진다면 국론 역시 극심하게 분열돼 옳고 그름까지도 그 의미를 상실하는, 너무도 무서운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그들의 방종이 자유라는 이름으로, 그들의 언어도단이나 망발이 민주라는 이름으로 포장돼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협하게 놔둬서는 안 된다. 당연한 것이 당연한 세상을 위해, 강력한 규제와 처벌,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한 시점이다.

46년 전 이유야 어찌됐든 군부 독재를 끝장 낸 김 부장 등 주요 인사들의 당당함, 담담함은 기억할만하다. 삼권분립이 기본인 민주공화국에서 당시 사법부의 비겁함도 잊어서는 안 된다.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이 어처구니 없는 비상계엄과 내란 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와 사법부의 추상같은 판결을 고대한다. 그 누구도 역사를 거꾸로 돌릴 수는 없다.

社說

인구 소멸 위기 극복 대안 '전남에서 살아보기'

귀농·귀촌을 꿈꾸는 도시민들에게 농촌에서 직접 살아보는 기회를 제공하는 '전남에서 살아보기'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귀농형과 귀촌형으로 나눠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2~3개월간 치유와 휴식, 농촌 체험을 즐기고 숙박비와 체험비까지 제공받을 수 있어 인기가 높다. 올해는 전남지역 18개 시·군 31개 마을이 334가구 431명의 참가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전남에서 살아보기'는 인구 감소의 직격탄을 맞은 전남도가 공들여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인구 180만명이 무너진 데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 감소 지역(16곳)이 있는 전남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관광 활성화 뿐 아니라 실질적인 인구 유입 가능성을 확인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9년 사업 시작 이래 참가한 2778명 중 16.3%인 464명이 전남으로 생활 터전을 옮기는 성과가 있었다.

며칠 전부터 참가자 모집에 나선 마을들은 전남만의 독특한 농촌, 해양, 자연자원과 맛·멋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해남 백포마을에서는 공재 윤두서가 머물렀던 고택을 탐방하고, 장성 별내리마을에서는 천문 체험에 참여할 수 있다. 신안 임자만났네마을에 머물면 통발과 무인도 체험을 즐길 수 있으며 완도 울모래마을은 실질적으로 귀농을 염두에 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참가자의 지역 이주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귀농·귀촌 정보를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 생활 터전을 옮긴다는 게 간단한 일이 아니기에 귀농·귀촌을 고려하는 이들이 현장에서 직접 살아보며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뒤따라야한다.

관광 활성화와 인구 유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참여 마을과 전남도는 철저히 준비해 더 많은 사람들이 전남에 살고 싶다는 마음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문화 광주' 성공 시험대가 될 '광주 방문의 해'

광주시가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7대 문화정책을 발표했다. 7대 문화정책을 바탕으로 문화 성장판을 키워 인권·평화 도시 이미지가 강한 광주를 명실상부한 문화수도로 각인시키겠다는 구상이다.

7대 문화정책은 크게 국제대회 개최 등 '이벤트'와 국립 문화시설 유치 등 '인프라 확충', 책 읽는 인문도시 조성 등 '콘텐츠 육성'으로 나눠 볼 수 있다.

올해 광주에서 열리는 국제대회는 세계양궁선수권대회와 20주년을 맞는 디자인비엔날레가 있고 국립 문화시설 유치에는 국립현대미술관·대한민국역사박물관·국회도서관 등 3종 세트가 있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책 읽는 인문도시 조성과 도심 전체를 시민들의 문화 향유 무대로 공유하는 콘텐츠 육성은 시민들의 문화 소양을 높이기 위한 소프트 정책이다.

7대 문화정책에는 '2025 광주 방문의 해'도 포함돼 있다. 광주 방문의 해 성공의 관건은 체류형 관광객들을 얼마나 유치해 이를 지역 내 소비로 연결할 수 있는가이다. 광주시는 기아타이거즈와 광주FC 경기를 연계한 상품을 출시하고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 작품 속 무대를 탐방하는 프로그램으로 체류형 관광객 잡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광주시의 7대 문화정책은 인권·평화 도시라는 다소 딱딱한 광주의 이미지를 소프트한 방향으로 돌린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궁극적으로는 문화수도를 표방하는 광주시의 장기적인 미래 비전과도 맞아 떨어진다. 그렇다면 이번 문화정책의 성공 시험대는 광주 방문의 해에서 얼마나 성과를 내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아야 한다. 광주의 이미지 개선과 문화수도의 완성도 결국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문화를 찾아 광주를 방문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올해 광주 방문의 해가 성과를 내 지역 소비 촉진에도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기 고

인공지능(AI)과 기상기술의 동반 성장

장동언
기상청장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AI 기반 기상예측 모델은 대규모 전산 자원을 활용하는 날씨 예측 프로그램인 수치예보 모델과 더불어 예보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중요한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기상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AI를 활용한 기상예측 모델의 연구 및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AI 기상예측 모델이 기존의 수치예보 모델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도 속속 발표되는 등 AI에 기반을 둔 기상예측 모델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대표적인 AI 기상예측 모델로는 구글의 그래프캐스트(GraphCast), 엔비디아의 포캐스트넷(FourCastNet), 화웨이의 팡구웨더(Pangu-Weather)가 있으며, 유럽중기예보센터에서도 자체 개발한 AI 기상예측 모델인 AIFS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 기상청에서도 지상관측을 대체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위성 산출물 생산, AI 초단기 강수예측 모델 개발, 구글 등 빅테크 기업의 AI 모델과 한국형 수치예보 모델의 결합 운영 등 연구개발 현장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AI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한편 AI 기상예측 모델은 기본적으로 수치예보 모델의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 정확도는 상당 부분 수치예보 모델에 의존한다. 또한 AI 기상예측 모델은 과거의 기상·기후 데이터를 학습하여 예측 성능을 높이는 혁신적 기술이지만, 과거에 발생하지 않은 극단적인 기상현상을 예측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기후변화로 극단적 기상현상이 빈번히 발생하는 현시점에서는 AI 기술만으로는 위험기상 예측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AI 기상예측 모델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최신 AI 기술의 도입뿐 아니라 전통적인 수치예보 기술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한 선제적 투자가 동반되어야 한다.

이에 기상청에서는 AI 신기술 도입 및 적용과 더불어 한국형 수치예보 모델 개발을 통해 그동안 쌓아온 역량을 바탕으로 수치예보 모델 해상도 향상, 입력 기상관측 자료의 확대, 구름·강수 등을 계산하는 물리과정의 정교화 등 수치예보 모델의 정확도를 한층 더 높이기 위한 기술 개발에도 힘을 쏟고 있다.

향후 AI 기술을 활용한 기상 분야의 발전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AI 기반 기상예측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AI와 수치예보 모델 두 기술 분야의 동반 성장과 융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미래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은펜칼럼

혼돈과 상실의 시대, 니체의 가르침

박상하
사회경제연구원장

니체는 신이 죽었다고 말한 철학자이다. 차라투스트라가 준 선물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기도 전에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고 책을 덮는 일이 다반사였다. 다시 읽어봐도 쉽지 않다. 심지어 번역한 책마다 내용이 일관되지 않을 때는 당황스럽기까지 한다. 그가 말한 핵심 사상은 관점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지만 요즘과 같은 혼돈과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한다.

인간이 경험한 지식과 기술 그리고 도덕과 양심을 백지 상태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아온 두뇌가 기억하는 일반적인 범위와 내용은 상식이라는 단어로 통용된다. 그러나 이런 상식도 집단과 이기적 논리로 포장하면 궤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목도하게 된다. 광장의 정치적 이슈가 그렇고 세대 갈등과 성별 갈등이 그렇다. 2030은 이념집단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이미 어떤 형태로든지 태도와 모양이 덧씌워지고 있다. 언론들이 '이대남'을 변혁의 주체에서 극우의 전사로 표현하는가 하면 남녀 간의 성전이 시작되었다고 갈라친다. 이러한 행태는 우리 사회의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

2023년 한국리서치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89.8%는 우리 사회의 집단 간 갈등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14개 갈등 유형별로 살펴보니 진보와 보수 세력간 갈등이 심각하다는 응답이 86.6%로 가장 높았다. 그중에서도 심각성이 크게 증가한 부문은 젠더 갈등이다. 이는 10년 전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높아진 것이다.

한국이 세계 1위의 갈등 국가라고 영국 킹스칼리지가 입소스에서 발간한 보고서도 있다. 전 세계 28개국 시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12개 갈등 항목 중 우리나라는 7개 항목에서 세계 1위였다. 특히 빈부격차에 따른 갈등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무려 91%에 달했다니 놀랍다. 한국이 압도적 1위를 차지한 항목은 또 있다. 성별과 나이가 그렇다.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젠더갈등, 세대갈등, 학력차별은 유독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5년을 기점으로 10~28세 사이의 정치적 이념과 사회적 변화에 그 원인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또한 7년 전 거세게 몰아친 미투 운동이 기폭제 역할을 했다는 지적도 많다. 그것은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확장되고 사회적 참여와 활동이 넓어지면서 남성들은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다. 나아가 여성들의 교육 기회가 남성들을 빠르게 추격하거나 넘어서면서 여성들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스마트폰으로 인한 소셜미디어의 역할도 크다. 이러한 환경은 정치적 왜곡과 함께 결혼과 출산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회적 관점도 달라지게 만든 여건이 형성되었다고 본다. 다른 나라도 남녀 간의 이념적 차이가 심화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지난해 영국 가디언지에 따르면 영국 남성 4명 중 1명이 여성보다 남성으로 살아가는 게 더 힘들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오늘날 30대 미만 세대는 성별에 따라 큰 차이를 겪고 있고 여성은 진보적이며, 남성은 보수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을 우리가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가치라기엔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 결국 이런 갈등과 혼돈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도 보고서에 나와 있다. 바로 국회와 언론이라는 응답이 90.8%로 가장 높았다. 두 집단이 갈등의 진원지라는 뜻이다. 그들은 옳고 그름보다는 늘 자기편을 만들기에 여념이 없는 집단이다. 니체가 말한 신의 죽음으로 기존의 지배적 가치가 몰락하고 이를 대신할 새로운 지배적 가치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허무주의에 빠진 것이다.

AI와 알고리즘이 유발 하라리의 상상력을 만나면 우리 뇌는 판단력을 상실한 사피엔스 변종이 될지도 모른다. 오류가 내장된 집단적 의사결정이 다수가 되고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라는 절차와 과정이 갖춰졌다고 해서 거짓이 진실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다. 시대가 변하면 사람들의 생각도 바뀌기 마련이다. 그렇다고 집단적 궤변이 정의와 마주할 수도 없다.

니체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창조해나가는 자기극복과 자기실현의 과정에서 진정한 주인공이 되기를 주문하고 있다. 집단주의에 함몰되어 개인의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윤리적 책임과 가치가 상처받고 있다면 니체의 가르침 속에 해답이 있다.

無等鼓

'밀당'의 엿 공정

엿은 찹쌀이나 조, 옥수수 등 곡식으로 밥을 지어 엿기름으로 삭힌 뒤 겻불로 밥이 물처럼 되도록 끓이고, 그것을 자루에 넣어 짜낸 다음 진득진득해질 때까지 고아 만든 달고 끈적끈적한 전통음식이다. 조선시대부터 본격적으로 민간에서 소비되기 시작했는데 '서로의 마음을 굳건히 이어준다'라는 상징성을 담아 혼례와 상례, 명절 등 중요 행사에서 긴하게 사용됐다.

한데 엿 만들기 작업은 생각과는 달리 녹록지 않다. 지역만의 차별화된 제조법 탓에 다른 지역의 엿과 구별되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엿을 만드는 기술은 주로 마을 내에서 전수돼 가족 단위로 만들며 특유의 제조법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오고 있다.

유기농 멥쌀을 씻어 4~5시간 불린 뒤 고두밥을 쪄 시루에 얹고 1시간 30분 동안 수증기로 찐다. 고두밥이 완성되면 엿기름과 온수를 통에 넣고 9~10시간을 기다리며 자연 온도에서 당화시킨다. 밥 알갱이를 분리한 후 가마솥에 넣고 3~4시간 졸이면 갱엿이 된다.

이것이 다가 아니다. 엿 제조에서 특히 어려운 엿 늘리기 작업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쐐기'라고 하는데 갈색 갱엿이 흰색으로 변하고 엿가락 속에 바람구멍이 숭숭 생겨나면서 바삭바삭하면서도 고소한 엿으로 탄생한다.

그렇다고 그저 밀고 당기기만 해선 바삭한 엿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밀 때도, 당길 때도 살짝 안으로 말아줘야 한다. 안으로 공기를 넣어 담아주는 것인데, 100번 가까이 '밀당'이 이루어져야 진짜 엿 맛을 낸다고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이 작업장 온도와 습도 조절이다. 온도가 낮으면 엿이 갑자기 굳기에 엿 만드는 방은 따뜻하게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갈색이 흰색으로 변하고 세세한 바람구멍이 생기게 하는 선조들의 지혜 즉, 녹기와 굳기를 적정하게 조절하는 능력이 여기에 숨어 있다.

최근 보수와 진보가 대립하는 대통령 탄핵 정국을 보면 한숨이 나온다. 탄핵이라는 중대사를 두고 자신의 주장은 강요하면서 타인의 생각에는 냉소를 넘어 저주를 보내니 말이다. 엿 공정에서 적정한 온도와 습도가 중요하듯 진영 갈등 해소에도 '밀당' 같은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 /김대성 제2사회부장 bigkim@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濟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24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4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48	여론매체부 220-0661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사진부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제2사회부 220-0680	디지털부 220-0697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 220 0661 / 팩스 062 222 4918 / e메일 opinion@kwangju.co.kr